

# IMF시대 계란소비 확대를 위해 뛰다.

- 홍 보 부 -

**I** MF이후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양축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경기도 광주군(군수 박종진)에서는 공무

원들이 자발적으로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농축산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 경기도 광주군청의 직원과 생산자들이 계란소비 확대를 위해 마련한 광주군청앞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미니인터뷰 / 김상원 축산계장(경기 광주군)

## 유통구조 개선 없이는 생산자 살 수 없다.

Q :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게된 계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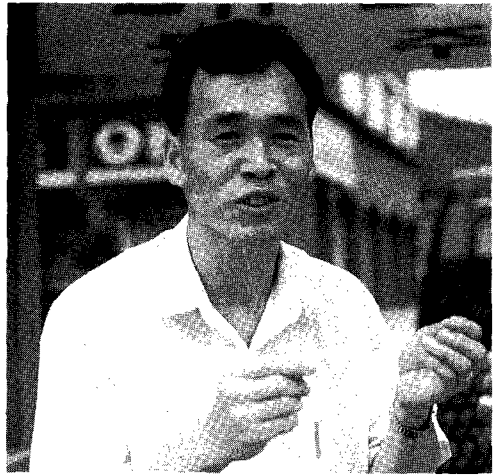
A : 외환위기 이후 소비부진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광주군의 축산인들과 몸을 같이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방관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통구조 개선 없이는 소비확대를 기대할 없다는 것을 깨닫고 윗분들의 격려와 대한양계협회 광주채란분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직거래장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Q :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활동은?

A : 저희 광주군내에 전파되고 있는 유선방송을 통해 직거래 장터를 알리고 있으며 주부들이 밀집해있는 아파트지역 부녀회를 중심으로 직접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찾은 소비자들이 다시 찾을 정도로 직거래 장터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Q : 어려운점은?

A : 고유업무를 병행하며 경험이 없는 저희들이 직거래 장터를 끌고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사양가를 위한 모든 일이 항상 업무의 일부라 생각하고 있으며 광주채란분회 이영재 분회장을 주축으로 직거래 장터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어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지역의 채란인들은 평소에 의견교환과 단합이 어느 지역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항상 느껴오고 있어 저희들로서도 일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해로 인해 어수선한 시점이라 당분간 쉬는게 어떠한 의견도 있었으나 꾸준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가격에 관계없이 한주도 쉬어서는 않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Q : 앞으로의 계획은?

A : 지금까지의 호응을 볼때 우리가 힘이 닿는한 판매장을 더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보전소 앞에도 조만간 직거래장터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 지역 뿐만 아닌 서울의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도 생산자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면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유통의 불합리를 막기위해 축협 등 농축산 관련단체에서는 이미 직거래 장터를 곳곳에 설

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공무원들과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직거래 장터를 마련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직거래장터는 주요 판매품목이 계란이기 때문에 우리 채란인들에게 더욱 힘이 되고 있다.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마련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 장본인은 지난 '80년부터 18년간 축산인들과 호흡을 같이해온 현재 광주군청에 근무하는 김상원(41세) 축산계장이다.

김계장은 최근 경기불황으

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은 소비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값싸고 믿을 수 있는 농축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직거래장터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광주군의 최종확답을 얻어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마련하게 되었다.

장소가 시민들이 비교적 한산한 군청앞이고 계란과 채소가 판매품목의 전부이지만 이에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성공적이었다.

특히 계란의 경우는 개장 첫날에 900판을 판매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인기상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본회 광주채란분회(분회장 이영재)에서도 이 행사에 적극성을 띄고 있다.

미리 직거래 장터에 참여할 회원들은 분회 월례회의때 우선 추천을 받아 선정을 하고 가능하다면 회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순번



△ 직거래 장터에서 계란소비 활성화를 위해 계란판매를 돕고 있는 전영표(광주군청 축산담당 : 좌)씨와 이영재(광주채란분회 : 우)분회장

을 정하는 형식으로 직거래 장터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계란은 선정된 농가에서 20~30개씩 포장을 하여 군청직원들과 함께 판매를 실시하고 있는데 가격은 농장 실거래 가격을 적용해 판매하기 때문에 농가나 소비자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특히 농가에서는 직접 계란을 판매함으로써 현장경험도 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계란제품이 어떤 것인가를 스스로 느낄 수 있어 농장에서 계란을 생산할 때 고품질 계란생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게 생산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광주분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힘이 된다는 김계장은 같이 일하고 있는 축산담당 전영표, 최정원씨와 행사 당일날이면 판매장에 나와 생산자와 시민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양계**